

# 박동철의 사진 강좌

- 박동철
- 사진
-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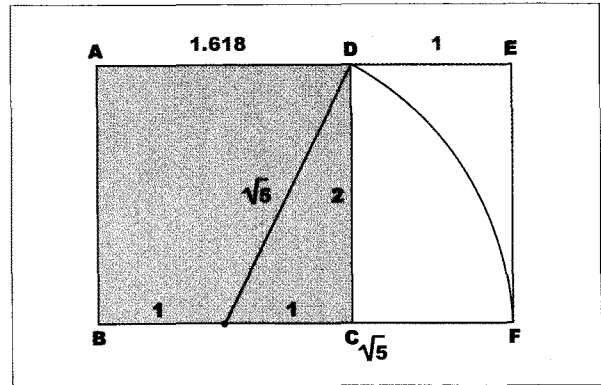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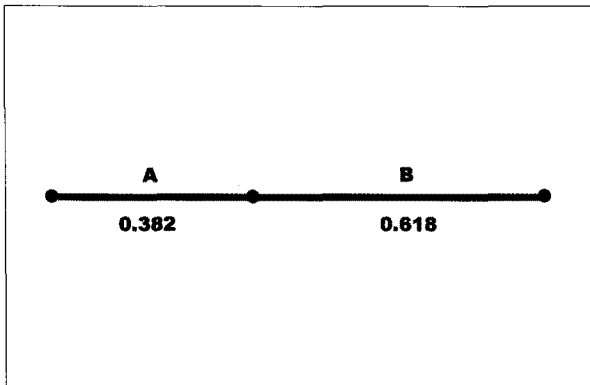
## - 네 번째 - 황금분할의 응용

황금비율은 가장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비율로서 회화나 사진 같은 시각예술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황금분할 법칙과 이를 응용한 삼분할법, 여백과 공간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구도를 잡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사진강좌 연재 일정	
<p><b>1. 사진을 만들어내는 요소</b></p> <p>가. 빛 나. 카메라와 노출</p>	<p><b>4. 황금분할의 응용</b></p> <p>가. 황금분할법 나. 삼분할법 다. 여백과 공간</p>
<p><b>2. 구성과 구도</b></p> <p>가. 구성과 구도의 차이 나. 시점의 차이 다. 지그재그 배치법</p>	<p><b>5. 초점 거리별 렌즈의 활용</b></p> <p>가. 표준렌즈 나. 망원렌즈 다. 광각렌즈</p>
<p><b>3. 화면 속 피사체의 배치</b></p> <p>가. 전경 나. 중경 다. 원경</p>	<p><b>6. 눈에 띄는 사진 만들기</b></p> <p>가. 대비 나. 타이밍 다. 보조피사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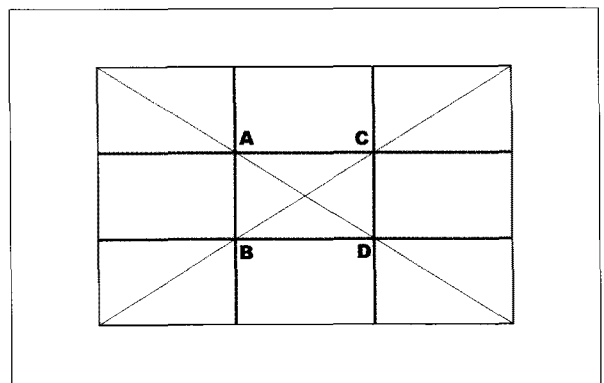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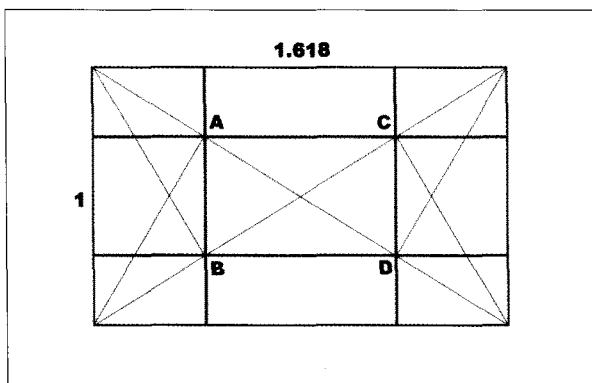
**가. 황금분할 법칙**

기원전 4700년경 만들어진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황금비율은 가장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비율로서 그리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축과 회화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하나의 선분을  $A : B = B : (A+B)$ 가 되는 비율로 나누었다고 하면 A와 B의 비율은 0.382 : 0.618 즉, 1 : 1.618의 비율이 되는 것이다. 이 비율을 황금비(黄金比)라고 한다. 이러한 황금비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에서, 선분의 분할에서, 혹은 물체의 모양들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는데, 황금비를 가지는 직사각형을 살펴보자. 각 변의 길이가 2인 ABCD의 정사각형의 중간에서 꼭짓점으로 이어진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sqrt{1^2 + 2^2} = \sqrt{5}$ 다. 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호를 그려 선분 BC의 연장선에 놓고 그 점을 F라고 하자. 선분 CF의 길이는  $\sqrt{5}-1=1.236$ 이다. 따라서  $DE : AD = 1.236 : 2 = 1 : 1.618$ 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황금분할 비율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담뱃갑이나 명함의 치수 등도 두 변의 비가 황금비에 가깝다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회화나 사진과 같은 시각 예술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화면의 네 귀퉁이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선을 긋고 다시 이 선에서 반대편의 모서리로 직각 방향으로 이어진 선들의 꼭짓점을 연결하여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으면 아래그림과 같이 ABCD의 점이 생긴다. 이 점들과 선에 의해 분할된 구역들은 회화의 구도를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 이 황금분할 선도를 그림 위에 올려놓았을 경우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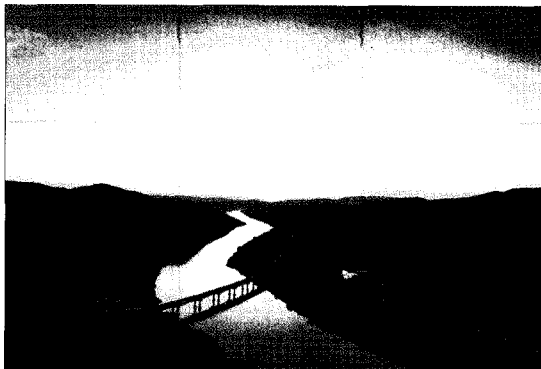
# 박동철의 사진 강좌

박동철  
사진  
강좌

## 나. 삼분할

사진의 구도 잡기는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보고, 앵글과 위치를 바꿔가며 그 속에 있는 요소들을 이리저리 배치하는 것이다. 이때 피사체를 한가운데 두면 어쩐지 어색하고 생동감이 없어 보이고 호소력 있는 사진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운데를 피해서 배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분할법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아름답고 균형 잡힌 비율이라고 하는 황금분할은 그 분할법이 어려워 정확한 구분을 짓기 힘들다. 또 1:1.618의 비율은 카메라의 2:3 비율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진의 구도에 있어서 황금분할은 적용하기가 애매한 것이다.

따라서 사진에서는 삼분할법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화면의 가로 세로를 모두 3등분한 선을 그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각각 ABCD로 하여 주제를 배치하거나 보조 피사체를 배치하는 방법이다. 또한 각각의 선으로 구획 지어진 곳들은 사진을 구성하는 비중있는 사물을 배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땅이나 하늘, 혹은 바다가 바로 그것이다. 예제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 화면을 이등분하여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보다 수평선을 삼분할선에 맞춰 화면을 구성하고 태양의 위치도 삼분할선의 교차점에 배치하면 더욱 안정적이고 보기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 출시되는 카메라의 LCD 창에는 삼분할선이 화면에 표시되어 적극 활용하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화면을 이등분하여 불필요하게 하늘을 많이 넣은 사진



삼분할법에 의해 하늘의 비율과 태양의 위치를 적절히 배치한 사진

## 다. 여백과 공간

일반적으로 화면에서 여백이 많아지면 안정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반면, 여백이 적으면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들 때문에 답답함을 만들거나 때론 호기심을 자아낸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풍경사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백으로는 하늘, 땅, 그리고 물이라는 요소가 있다. 사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하늘이나 바다가 화면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사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어색함을 만들게 된다. 이런 경우, 우선 짚으려는 풍경에서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주제가 하늘이 된다면 화면

중에서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늘려야하고, 바다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있다면 화면에서 바다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시때 앞서 설명한 삼분할법을 머릿속에 담아둔다면 더욱 안정적인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화면 속 주제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주 피사체의 진행방향이나 응시 방향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여백을 많이 주어야 할지가 그것이다. 아래의 예제사진을 보면 바로 그 해답을 알 수 있는데 진행되는 방향으로 여백을 많이 주는 것이 안정감 있는 사진을 만드는 비결이다. 진행방향의 여백은 인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동물, 꽃 등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에 적용되어진다. 하지만 이는 하늘의 여백이 많으면 나쁘다거나, 진행방향의 반대쪽에 여백을 많이 두는 것이 잘못된 구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균형감각에 비춰볼 때 가장 안정된 구도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지, 작가의 의도와 그 균형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작가는 불균형을 강조하고 싶는데 균형 잡힌 사진을 보인다는 것은 그 의도와 상반되는 것이 아닐까? 사진의 구성은 언제나 작가의 의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그 구성은 반드시 주제를 가지게 되고, 그 주제와 공간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사진이 된다.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과 여백이 반대방향이라 어색해진 사진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여백과 부제가 배치되어 안정적인 사진



### 박동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진 활동을 시작하여 전국 각지를 구석구석 여행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사진에 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여행지를 대표하는 '여행이 즐거워지는 사진 찍기' 1편과 2편 및 사진전문 서적 '사진의 구도&구성' 등을 출간했다. 2001년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의 사진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유명 여행지와 사진촬영기법 소개를 위해 TV와 라디오 등에도 수차례 출연한 바 있다. 2008년과 2009년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P&I)에서 사진학 강의를 비롯한 각종 사진학 강의 및 세미나를 주관하며 사진 계에서는 유명강사로 정평이 나왔다. 현재 사진동호회 처리닷컴(<http://cheori.com>)을 운영 중이다.